

“저축銀 사태 ‘MB게이트’로 번지자 호남기업 죽이기로 몰타기 하나”

민주당, 프라이머저축銀 수사 반발...靑·檢 맹공속 박근혜도 정조준

저축은행 비리 수사와 대검 중수부 폐지 등을 놓고 청와대와 검찰을 향해 맹공을 퍼온 민주당이 8일에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를 정조준, 전선 확대에 나섰다.

박근혜 전 대표가 동생 박지만씨의 삼촌저축은행 로비 연루설에 “본인이 아니라 밝혔으니 그것으로 끝난 것”이라고 일축한 게 발단이 됐다.

우선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반 국민도 본인이 아니라 하면 끝인가, 아니면 박지만씨에게 적용되는 특별한 법이 있는 것인가”라고 꼬집은 뒤 “박 전 대표의 끝없는 특권적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같이 뒷맛이 씁쓸하다”고 말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청와대는 중수부 폐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

고 ‘여의도 선택여왕’은 동생이 말했으니 그것으로 끝이라고 하면 그만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지난 3일 대정부 질문을 통해 박지만씨의 이름을 처음 거론한 데 이어 박 전 대표를 직접 겨냥한 데는 여론의 유력 대권주자인 조기에 견제하겠다는 의도로 읽히고 있다.

이윤석 의원은 이날 박지만씨가 신삼길(구속기소) 삼촌저축은행 명예회장과 만날 때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 외에 다른 청와대 인사와 국정원 간부도 동석했다는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청와대의 권재진 민정수석과 정진석 정무수석, 민병환 국정원 제2차장, 박지만씨, 신 명예회장 등이 강남구 청담동의 W차이나스 레스토랑에서 자

주 회동을 가져왔다는 제보가 있다”며 해당 음식점의 사진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검찰과 청와대에 날을 세우며 공세를 이어갔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검찰의 야합은 민심과 천심에 어긋난 것”이라며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마저 부산저축은행 계열사 고문을 지냈다는데 모든 의혹을 국정조사를 통해 낱알이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일각에서는 검찰의 프라이머저축은행 수사 문체와 관련, 이명박 정권의 비리에 대한 ‘몰타기’ 의도가 있다는 주장을 내세워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이날 “호남기업인 프라이머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를 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청와대가 검찰 편을 들어주면 호남기업을 끌어내

수사를 해야만 하지 말고 싶다”며 “TK(대구·경북) 라인들이 모여 ‘호남 죽이기’식 수사를 한다면 국민이 분노를 느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정권 실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저축은행 사태가 ‘MB 게이트’로 발전해가자 과거 정권 인사와 호남 기업인들의 연루설을 끊임없이 제기하더니, 오늘 아침엔 정상 영업 중단인 프라이머저축은행의 수사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다”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이는 호남 사람들과 과거 정권을 흠집내고 모략해서 정권 실세들의 비리를 희석시키려는 ‘몰타기’수작”이라며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과거 정권에 책임 떠넘기기’와 ‘호남기업 죽이기’를 계속한다면 호남인들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에 공들이는 ‘외길 민주당’ 김정길 전 장관

12일 DJ센터서 출판기념회...대권 향한 호남민심 파고들기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장관이 광주에서 출판기념회를 갖는 등 ‘광주’에 부쩍 공력을 들이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광주·전남에서 자신의 지지모임인 ‘길벗 산악회’와 ‘국민포럼 러브 코리아’ 등에 대한 창립식을 하는 것을 비롯한 공식·비공식 지지모임과 강연회 참석차 한 달에 한두 번꼴로 광주를 찾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다.

오는 12일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자전 에세이집 ‘김정길의 희망’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출판기념회에서 내년 대권 도전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출신인 김 전 장관이 이처

립 광주에서 정치 행보를 가속화하는 배경에는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전남에서 기틀을 마련하면 대권 가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부산에서는 비교적 확고한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김 전 장관은 지난 2002년 ‘노동’을 불러일으킨 광주에서 또 한번의 기적(?)을 일으키려 하고 있는 심상이다. 따라서 김 전 장관은 1985년 부산에서 12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민주당의 외길’을 걸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호남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1990년 3당 합당 당시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야권에 남아 ‘DNA가 민주당’임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처럼 김 전 장관은 영남 출신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강점으로 삼으며, 현재 야권의 유력 대권 후보인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원외 인사로 민주당 내 지지기반을 넓히고, 대중적 지지도를 올려야 하는 숙제도 남아있어 향후 행보가 어떤 결실을 볼지 주목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 ‘반값등록금’ 정면돌파

김진표 원내대표 “등록금 빛볼, 정치권이 답해야”

민주당 지도부가 8일 당내 일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학 등록금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취지의 ‘반값등록금’ 정책을 밀어붙이기로 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존 등록금 지원책의 수혜 범위를 중산층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연간 9600억원의 예산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는 국·공립대부터 정책을 적용하고 사립대는 재정지원 구조조정을 통해 등록금 인하를 유도할 것”이라고 이행 방안까지 제시했다.

민주당이 소득 5분위 이하인 저소

득층 가구 위주로 짜진 기존 등록금 대책을 이처럼 ‘공격적으로’ 재편기로 한 것은 최근 대학생들의 촛불시위와 동맹휴업 등으로 고조된 등록금 불만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손 대표는 지난 6일 저녁 대학생들의 촛불시위에 참석,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으라”는 일부 대학생의 항의를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당내에는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현실적으로 반값등록금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 의원은 “촛불시위 때문에 정책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다”며 “재원이 국립대보다 훨씬 많은

사립대에 ‘등록금을 절반만 받으면 나머지는 채워준다’는 것도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도 이날 “등록금 촛불이 햇불이 돼 번지고 있다. 대학생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인데 정치권이 여기에 답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손 대표 입장에 힘을 실었다.

그는 반값등록금 재원 대책에 대해 “정부가 재정지출 우선순위를 토목공사에서 사람과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로 바꾸면 바로 국공립대 대학은 내년부터 갈갈이 가능하고 사립대는 재단적립금 전입을 유도하면 실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동영·전정배 최고위원 등은 아예 ‘무상등록금’이라는 강경한 주장을 펴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관련 소위원회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검찰관련 소위원회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문민화 추진...政·檢 갈등 고조

국회 사법특위, 靑·警 수사권도 손질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법무부에 검사를 근무시키지 않는 ‘법무부 문민화’ 방안을 추진, 대검 중수부 폐지 문제로 촉발된 정치권과 검찰의 갈등이 가열될 전망이다.

사법특위 검찰관계법 심사소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 기소 독점을 견제하는 기구인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방안 등과 함께 검찰청법 개정

안을 논의한다.

이 법안은 검사나 검사 임명 자격이 있는 사람은 법무부 직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문민화법’, 또는 ‘법무부 탈검찰화법’ 등으로 불린다.

검찰청 등 법무부 핵심 부서와 요직을 검사가 차지하면서 검찰이 상위 기관인 법무부를 주도하는 것을 근본

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2003년 강금실 전 법무장관 때부터 정 전 행정관료를 법무부에 영입하는 작업이 진행돼 왔지만 검찰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었다.

검찰소위 위원은 “법무부 문민화는 작년에 여야가 의견을 모은 내용”이라며 “6인소위 합의안에 없었어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법특위 내의 일부 검찰

출신 의원은 6인소위 합의안에 없던 법무부 문민화 방안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현실화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검찰소위는 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검찰의 수사지휘권 남용을 허용치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와 복종의무 삭제 등에 합의한 검찰소위는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 허용 범위를 놓고 의견을 조율 중이다. 김·경 수사권 조정안은 9일 검찰소위 전체 회의에서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손학규 “검찰 개혁 3대 과제 적극 추진”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김·경 수사권 조정 등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8일 “중수부 폐지는 물론 특별수사청 설치, 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3대 과제를 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를 통해 방영된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밝힌 뒤 “검찰의 저축은행 수사 중단 협박과 중수부 폐지 반대를

보고 ‘정치검찰 개혁’이 거약 체결의 최우선 과제를 꼽았다”면서 “검찰은 ‘거약(巨惡) 체결’을 앞세워 대검 중수부 폐지에 반대하지만, ‘권력에 휘둘린 판파수사’가 바로 우리 사회의 거약”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저축은행 사태는 이명박 정부의 권력형 민생비리인데, 어느 날 수사에서 대통령 측근, 권력 실세

가 갑자기 사라졌다”면서 “검찰이 스스로 진실하다고 주장하려면 살아있는 실체를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전·현 정권, 여야를 가리지 말고 성역 없는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특히 “검찰에 경고한다”고 전제한 뒤 “중수부가 검찰의 전부 인양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 논의는 입법부에 맡겨야 한다”면서 “검찰이 이에 간여하거나 청와대와 결탁할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인동심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점 포가 할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이었던 클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TEL)011-602-2532
광주광역시 남동구, 대인동 소남2가(내년)

나라공인중개사

펜션텔 매도

전북순창군 북흥면 대방리 펜션텔 2007년준공

- 대 지 : 10980㎡, 임야 : 13937㎡
- 케모마일 23평형 3개동, 케모마일10평형17개동 관리동1,각각 독채형식 주차장1, 수려한경치,수원원,기도원적합 여우대지많은,계곡있음
- 매매가 : 13억(근저당2억9천포함) • 실투자금 : 11억1천

모텔매도

전라남도 여수시 울산면 월산리 • 대지 : 1038㎡, 건물1095㎡

- 지하1층지상4층 객실 : 297개 엘리베이터 있음 울출산단입구
- 2012 여수세계박람회 숙박업 지정업소
- 매매가 : 10억(근저당3억6천대출세가능) • 실투자금 : 6억4천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한국아파트아파트후문부근 코너

- 대 지 : 262㎡ 제2종일반주거지역 원룸,빌라,점포형주택 적합
- 매매가 : 1억5천만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북광주IC 부근 생산농지

- 담 : 1425㎡ 투자적합 도로있음 영산강변 경치좋은
- 매매가 : 2억2천5백만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일동초교부근

- 대 지 : 210㎡ 제2종일반주거지역 코너 원룸,빌라 적합
- 매매가 : 1억3천만

과수원매매

전라남도 곡성군 북사동면 신전리

- 전.담 : 9150㎡ 계획관리지역 배나무 15~20년생 2000주이상 지대가 높아 과실당도 아주 좋음
- 매매가 : 1억3천5백만

토지매매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평지리

- 공장용지및잡종지 : 8480㎡ 공장부지 : 3192㎡외 잡종지 담양육과방면2차선 도로점 4차선도로 계획있음
- 매매가 : 6억4천만

대표전화 ☎511-6633
핸드폰 : 010-6522-7731 FAX : 512-4589

신진공인중개사(임대전문)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 매매

- ▶ 산월IC 교통광장 접 코너
- ▶ 면적: 700평, 1350평 분할가 광고효과 최고!!
-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화순 북면 수원원양원기도원 부지 매매

- ▶ 임야: 47000평, 단층건물: 250평 (5동)
- ▶ 단지내 도로개설됨 소나무, 산악초 재배단지
-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남구 송하동 토지매매

- ▶ 대 지 : 1500평(6차선 도로점)(700평)
- ▶ 자연녹지 : 700평 ▶ 일반공업지역 : 800평
-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북구 동림동 공장(창고)급매

- ▶ 대 지 : 538평, 680평, 1000평
- ▶ 건 물 : 300평, 200평, 200평
- ▶ 높 이 : 8.9, 10.9m
- ▶ 호이스트 : 유, 유, 유
- ▶ 매매가격: 협의후결정

문의: ☎ 016-644-4265, FAX.523-8558

옥상·외벽·내벽·주택 방수

전 | 문 | 방 | 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품질경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입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 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특수 방수주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